



주천면 '하루발효마을', 사랑 실천 잇따라

남원시 주천면에 소재한 마을기업 '하주발효마을'에서는 올해 6월부터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주 금요일마다 반찬 배달을 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마을기업 수익금으로 식재료를 구입하고, 주민 봉사단이 반찬을 만들어 직접 배달하며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는 봉사활동이다.

고령의 불편한 몸으로 혼자 끼니를 챙기면서 소홀해지기 쉬운 식사를 매주 어르신의 입맛과 영양을 고려한 반찬을 지원해드림으로써, 어르신들의 영양 관리와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통한 정서적 고립감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반찬을 지원받으시는 어르신들은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직접 집으로 배달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마을기업과 봉사단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하주발효마을' 관계자는 "반찬 봉사에 어르신들께서 만족해하시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 나가고, 마을과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

완주 '우리마을 행복센터 협동조합'
8500여개 부채 지역 곳곳에 전달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도움에 나설 것"

완주군 관내 기업체인 우리마을 행복센터 협동조합(대표이사 이성운)은 지난 8일 완주군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8500여개의 부채를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부채전달은 완주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를 통해 읍면 맞춤형 복지팀에, 완주군 관내 독거 어르신들에게는 각지역 생활관리 지원사를 통해 완주군 장애인분들은 완주군 장애인 연합회를 통해 전달했으며 여성새마을, 기타 여러단체의 시설 등에도 전달했다.

올해 더위는 그 어느해 보다도 무더운 것이라던 예보를 듣고 협동조합은 완주군의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현재 입주하고 있는 완주군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자 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지원이 되었으며 자부담 등을 합쳐 이루어졌다.

협동조합은 부채에 "기업체 육성과 홍보는 물론이고 건강한 여름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란 질병관리청의



내용을 부채에 담아 무더운 올 여름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건강하게 여름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기도 했다.

한편, 협동조합은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조합이 도울수 있는일이 있다면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진성 진안군수, 고향사랑기부제 인증 챌린지 동참

전진성 진안군수는 10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인증 챌린지'에 동참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인증 챌린지는 '고향사랑기부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시작한 기부 릴레이로, 국회의원, 단체장 유명 인사들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인증 후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진성 군수는 진안군의 자매도시인 부산 북구의 오대원 북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했으며, 또 다른 자매도시인 대구 남구에 기부한 후 다음 릴레이 주자로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을 지목했다.

전진성 군수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 자매도시인 부산 북구의 지목을 받고, 또 다른 자매도시인 대구 남구에 기부를 하게 되면서 자매도시끼리의 결속을 다지고 상호도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진안군을 비롯한 진안군 자매도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현재 주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진안군은 현재 돼지고기, 홍삼 김치, 진안홍삼스파 상품권 등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기부자 맞춤형 답례품을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캠버리 참가 스카우트 대원들 의료지원은 계속된다'

전북대병원, 전북대 생활관 내
'JBUH임시진료소'서 의료지원
개막부터 현장 의료봉사에 나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이 새만금에 이어 전북대학교 생활관에 도착한 캠버리 참가 스카우트 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재난응급 및 의료지원팀을 긴급 파견해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10일 전북대병원에서 따르면 캠버리 참가자들의 의료지원을 위해 전북대학교 생활관 새빛2호관 내에 'JBUH 임시진료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전북대병원은 임시진료소에 의사와 간호사 행정인력 등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을 파견해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진료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24시간 실시간으로 응급상황 정보를 공유해 긴급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JBUH 임시진료소에서는 가벼운 부상이나 기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며, 기본 처치 물품과 약품이 비치돼 있다.

참가자가 현장을 방문하면 의료진이 상태를 파악해 치료 방향을 결정하며 임시진료소에서 치료 어려운 환자에 대해서는 10분 이내 도착 가능한 전북대병원으로 이송해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한다.

또한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유증 환자는 임시진료소 내에 비치된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코로



나19 이외의 감염환자는 전북대병원응급실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전북대병원은 캠버리 공식 대표 협력병원으로 캠버리 후송환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캠버리 행사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현장에 30여 명의 의료봉사단 및 재난응급지원팀을 긴급 출동시켜 치료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해왔다.

대한의사협회의 긴급 요청으로 수액세트와 포타린, 린넨 세트, 환자이송용침대 등 의료구호물품을 지원하는 등 의료 지원을 지속해왔다.

스카우트 대원들이 전북대학교에 도착한 이후부터는 학교 현장에 파견된 임시진료소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희철 병원장은 "캠버리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꺼이 나서준 의료진들에게 감사드리며 현장과 실시간으로 응급상황을 정보를 공유해 재난과 의료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귀뚜라미그룹, 익산시에 장학금 5000만원 쾌척

귀뚜라미그룹(회장 최진민)은 10일 익산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귀뚜라미 박규태 전북지사장, 이동선 익산시부대리장대표, 황승택 익산동부대리장대표 등이 참석하여 장학금을 전달했다.

뜻깊은 장학금은 학력우수·저소득층·모범추천 학생들의 학업 장려를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박규태 귀뚜라미 전북지사장은 "이번 장학금이 어려운 가정으로 소외되는 학생들에게 큰 기쁨과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귀뚜라미그룹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나눔 경영을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익산시에 장학금과 친환경보일러 무상지원을 후원해주신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귀뚜라미그룹의 나눔경영이 추구하는 인재육성과 복지실현에 익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무주양봉협회 총무, 무주군에 꿀 100병 기탁

폭염에 이은 태풍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무주군에 나눔과 기부의 손길이 이어져 훈훈함을 전해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10일 무주군양봉협회 한철수 총무가 자신이 직접 벌을 쳐서 생산한 꿀 100병(1병당 500g, 125만 원 상당)을 무주군에 기탁(개인 기부)했으며 관내 한부모 가정과 위탁가정에 전달해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철수 총무는 "한여름 덥고 습한 날씨에 지치고 불안한 사회 분위기에 위축된 우리 이웃들에게 기운을 드리고 싶었다"라며 "몸에 좋은 꿀 챙겨 드시고 건강한 여름나기였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 총무는 현재 무주읍에서 양봉업을 하고 있으며 무주군은 이날 기탁 받은 꿀을 대상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대, 2023학년도 하계 캄보디아 해외 봉사 마무리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캄보디아 프놈펜과 시엤립 지역에서 해외 봉사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귀국했다고 밝혔다.

전주대학교는 기독교 명문사학으로서 나눔과 섬김의 실천과 적극적인 봉사활동의 구현을 위해 매년 저개발국가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쳐 왔으며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해외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에 파견된 전주대학교 하계 학생 해외 봉사단은 총 50명으로 지난달 3~15일 캄보디아 프놈펜(코비어전센터, NPIC-JIU FRIENDSHIP CENTER)과 캄보디아 시엤립(참빛교회)으로 총 2개 팀이 파견되었다.

캄보디아 프놈펜팀은 교육팀(한국어 및 한국어문화, 과학, 미술, 보건 등), 문화어체능팀(k-pop, 동요, 전통 놀이, 미니 올림픽 등), 노이지원팀(요리, 유아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미술 등)으로 편성되어 진행하였고, 캄보디아 시엤립팀은 MK 사역, MK 전양축제, 음악 앙상블, 현지인 앙상블 사역을 진행하였다.

현지 기관에서도 코로나 이후 도움의 손길이 매우 부족하여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코로나 시기에는 학생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만들어서 기부해 주고, 코로나 이후에도 현장



에 와서 도움을 주셔서 전주대학교를 통해 기관의 재도약을 위한 초석이 되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문택 선교봉사처장은 "학생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나눔과 섬김의 리더십에 기초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고창경찰, 대한노인회 고창지회서 교통안전교육

고창경찰서(서장 이석현)는 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에서 안전지킴이 62명 대상으로 수신호 요령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창군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는 노인사회 활동 지원사업으로 어르신 6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 등·하교 통학로 교통안전 지도 및 학교 주변 순찰 활동이 주된 역할이다.

고창경찰청은 올바른 교통안전 지도를 위해 수신호 방법을 안내하고 함께 동작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평소 교통안전 활동을 하면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 보행자 사고사례 및 안전예방수칙 등 설명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어르신들의 호응도를 높였다.

이석현 고창경찰서장은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를 자신의



안전은 물론 등하교 어린이, 보행자의 교통안전에 대해 정확한 수신호 등의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운암면, 공익직불제 대면 교육

임실군 운암면이 지난 9일 관내 농업인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직불제 대면 교육을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이 강화돼 오는 9월 15일까지 직불금 의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동영상 교육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경우에는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간접 교육을 자율적으로 진행하였다.

면은 온라인 기기 작동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 직불금 신규신청자 등의 편의를 위해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유혜숙 운암면장은 "거동이 불편한 농업인이나 개인 사정으로 대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해 별도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방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 미이수로 인한 감액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준영 기자

김제 금산면서 '마을행복밥상' 진행돼

김제시 금산면(면장 이승곤)은 10일 금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영준)와 어부바 주민자치봉사단(단장 홍성열)과 함께 '마을행복밥상' 과일 지원을 진행하였다.

'마을행복밥상 사업'은 시기에 맞는 특색있고 영양 높은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홀로 어르신들께 큰 응원이 되고 있다. 언제나 열정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시는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알림

▲제회 장수군 천천사랑 전국토트기요제는 일시: 12일 오전 11시(예선)·오후 4시 30분(본선), 장소: 장수군 천천면 춘송길 11 김강대습기 축제 특별무대, 주최: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연락처: 063-231-6669, 010-7304-5665(김양숙)